

## I. 김포지역 6.25 전쟁사

1. 북한군의 김포반도 작전계획
2. 북한군의 도하작전과 국군의 대응조치
3. 인천상륙작전과 김포반도 상황
4. 터키군 참전과 김포배치
5. 1.4후퇴 이후 해병대의 김포반도 방위

## I. 김포 6.25전쟁사

이 글은 6.25전쟁 과정 중 김포지역에서 전개된 북한군과 국군 및 유엔군간의 전투상황을 중심으로 요약서술한 것이다.

1950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북한군의 김포지역 점령과 국군의 방어 및 후퇴상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두 번째 인천상륙 작전에 의해 연합군 및 해병대의 김포진격이 이루어진 1950년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또한 1951년 1월 4일 일명 1.4후퇴 이후 서울재수복이 이루어진 1951년 3월 16일까지 해병대의 김포재확보 과정을 기술하였다.<sup>1)</sup>



1951년 4월 3일. 강대국이 그어놓은 원한이 3.8선. 이 3.8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는가.

1) <김포6.25전쟁비사> 조사와 관련하여 주민증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김포지역에서 전개된 전쟁사(전투사)를 중심으로 요약 발췌하였다. 참고도서는 본문 후반부에 첨부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태풍 '엘시'의 영향으로 38선 일대는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38선 일대에 배치돼 있던 북한군 각 부대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면서 '폭풍'이라는 암호가 하달되었고 무전망으로는 '224'가 타전됐다.

암호 '폭풍'과 무전망의 신호 '224'는 이미 남쪽을 향해 포격을 시작하라는 남침명령이었던 것이다. 이로서 북한군의 포구(砲口)는 일제히 남쪽을 향해 불을 뿜기 시작하였고 피비린내 나는 남북한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38선으로부터 불과 40키로 떨어진 서울 시민들이 일요일을 맞아 느긋한 아침 단잠에 빠져 있는 사이, 북한군은 질풍노도처럼 남으로 진격해 왔다.

북한군은 불과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장악했고, 국군의 주력은 한강 이북에서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다. 이후 전쟁은 무려 3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그리고 한민족이 5,000년 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한반도는 아비규환의 수라장 속에서 잿더미로 변했다.

김포지역도 이 참혹한 현실을 맞이해야 했으며 그야말로 북한군의 공격암호가 말해주듯이 김포반도에 폭풍이 들이닥쳤다.

김포지역에서 전개된 북한군과 아군의 전투사를 통해 그 폭풍의 현장을 소개한다.

## 1. 북한군의 김포반도 작전계획<sup>2)</sup>

### 1) 김포반도 진격 작전계획

1950년 6월 25일 남한 공격을 감행한 북한군의 작전계획 기본방향은 “1950년 6월 말 전면공격으로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하여 한국정부를 전복시킨다. 그 후 인민군이 신속히 남해안까지 진격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함으로써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 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sup>3)</sup>

북한군은 위와 같은 전략적 방침과 작전개념하에 남침의 기본계획을 세웠다. 특히 개성방면의 제6보병사단(-1개 보병연대, 1개 포병대대 및 1개 자주포포대)은

2) 북한군의 김포반도 진격 및 점령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에 기술된 북한군의 김포반도 진격 작전계획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75.

한강을 끼고 있는 김포반도 진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다.

“첫째 날 오후 늦게 병력 일부로 하여금 개성반도의 방비를 강화하게 하면서 하조 강리(개성 남방 20km) 지역에서 한강을 도하하고, 둘째 날 아침에 통진(강화 동남방 6km, 현재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기점), 백석현(통진 서방 2km, 현 통진을 도사리) 고개, 마곡리(통진 서방 8km, 현 하성면 마곡리), 선을 따라 강의 남쪽 강변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서울의 적 병력이 서남쪽으로 후퇴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한강 남쪽 강변을 따라 영등포(서울 서남방 5km)로 공격을 확대할 준비를 갖추다”는 것이다.

위 전략계획에 의하면 김포반도로의 진격은 서울에서 후퇴하는 국군의 퇴로 차단을 목표로 김포를 진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포반도의 진격은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었다. 바로 한강도하의 문제였다.

북한군 작전 김포지도<sup>4)</sup>



## 2)북한군의 작전경과 과정

북한군은 김포반도 진격을 위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한강은 진격에 있어 치명적인 장애물(6km까지의 폭과 0(8)M까지의 수심)이었

4) 6.25전쟁 당시 북한군 작전 지도/이 문서는 북한군 제105전차여단 107연대가 축척 1:50,000 지도에 강화도, 고양군, 서울, 부천 등 한반도 중서부 지역 등이 포함된 김포지역에 대한 방어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1949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작성한 것이다./제지/ 가로 : 178cm 세로 : 118cm



기 때문에 이 강을 도하하는 데는 충분한 양의 도하장비와 군관 및 병사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였다. 적절한 조직력이 부재하고 도하장비도 부족했기 때문에 6월 26일 아침 6시 30분 무렵까지도 제15보병연대 예하 1개 대대, 제13보병연대 예하 1개 대대, 교육대대 및 76mm야포 2문만이 한강남쪽 방면으로 도하할 수 있었다.

북한군의 한강도하는 한강하구의 자연적인 환경조건과 도하장비의 부족 때문에 시간을 많이 지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군은 6월 27일 한강도하에 성공하여 김포지역 월곶면 조강포 지점에서 3키로까지 진격하는데 성공했다.

“제6보병사단 예하 부대들은 포격과 공습에도 불구하고 도하를 계속하여 6월 27일 오전에 제15보병연대, 제13보병연대 주력, 제15보병연대 연대 포병 및 대대포병, 제6사단 포병연대 예하 2개 포대와 제17군단 포병연대 예하 제2포대 등이 한강을 도하하였다. 그 외의 포병, 전차 및 자주포 등은 도하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6월 27일 여명을 기해 짧은 시간동안 포병 공격준비 사격을 실시한 후, 제15 및 제13보병연대는 적을 공격하여 교두보를 5km 내지 6km까지 확장하였다. 그러나 항공과 포병의 지원을 받는 적은 강력한 저항을 펼쳤으며 수차례에 걸쳐 역습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오후 5시 무렵에 사단 예하부대들이 적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통진, 백석현 고개, 선을 점령하였다. 전과확대를 위하여 교육대대가 통진(현, 월곶), 율생리(통진 남동방 8km, 현 대곶면) 방면 전투에 투입되었다. 사단은 6월 27일 오후 늦게 율생리, 수참리(통진 동남방 8km, 현 양촌면) 선까지 진출하였다”

“이후 제6사단 예하 부대들의 진격은 서울로부터 투입된 적 제22보병연대 2개 대대, 2개 보병학교생도 대대 및 여타 부대들의 조직적 저항에 의해 약산리(통진 남방 10km, 대곶면), 도이곶(도사리, 통진 동남방 7km, 통진읍) 선에서 저지되었다”

“6월 27일 주간에 시도된 포병의 도하는 적의 수차례에 걸친 항공공격으로 인하여 계속 지연되었다. 6월 27일 밤부터 28일까지 사단내 보병 제13보병연대 연대포병 및 대대포병, 제6포병연대 예하 2개 포대, 76mm 자주포 포대, 제17군단 포병연대 예하 제2포대 및 전차중대 등이 강을 완전히 도하하였다”

“6월 28일 여명을 기해 짧은 시간 동안 포병공격 준비사격을 실시한 후에 보병이 전차중대와 협동으로 적을 공격하여 적을 대곡리(김포 서방 4km, 현 인천시 서구 대곡동), 김포 지역으로 퇴각시켰다. 하지만 진격을 계속하여 김포를 점령하려

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 펼쳐진 10여 시간에 걸친 전투 후에야 적의 저항을 와해시키고 오후 5시 20분에 사단 예하부대들이 김포를 점령할 수 있었다. 이후 사단의 진격은 서울에서 철수하는 적 부대들로 인하여 정지되었다.

6월 29일 하루 동안 예하부대들은 김포 동남방 10km 지점에 위치한 공항을 점령하기 위하여 전투를 벌이는 한편 적의 역습을 격퇴시켰다.

### 3) 김포 점령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

북한군의 김포반도 진격은 중공군 제166사단을 전환하여 편성한 제6사단이었다. 이 부대는 1942년 만주의 관동군에서 탈주한 한국인들을 모아 편성된 중국 공산당 8로군 예하 동북의용군 사단으로, 항일투쟁과 국공내전의 전투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록 있는 사단이었다. 이들은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합의에 의해 국공내전이 마무리될 즈음인 1949년 7월, 북한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의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단명칭을 제6사단으로, 예하연대를 제13·14·15연대로 개편한 후 국적전환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하였다.<sup>5)</sup>

개성 및 김포반도를 공격하였던 제6사단의 주요장비는 <표1>과 같이 T-34전차 4대를 비롯한 SU-76자주포 16문 등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표1> 북한군 제6사단의 주요장비 현황<sup>6)</sup>

구분	계	사단(-1)(개성지역)	제1연대(웅진지역)	비고
122mm평사포	8	8		군단지원포병
122mm곡사포	16	12	4	사단8,군단
476mm견인포	40	28	12	
76mm자주포(SU-76)	16	11	5	
45mm대전차포	48	36	12	
120mm박격포	18	12	6	
82mm박격포	81	54	27	
T-37전차	4	4		배속부대

5) 『한국전쟁(제1권):38선 초기전투와 지연작전』, 육군본부, 1986, p.19.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부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1권)』, 2001, pp.284-287.



북한군 제6사단장에 임명된 방호산(方虎山:본명 李天富) 소장은 1913년 함경도에서 출생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 후 흑룡강성 밀산지역에서 공산당 항일유격대에 참가하고, 1936년경 공산당 만주성 위원회의 추천으로 소련에 유학하여 모스크바 동방대학에서 수학하였다. 1940년 소련에서 교육을 수료한 후 연안에 도착하여, 동북간부 훈련반과 중공 중앙 해외사업위원회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일제 패망후 동북조선의용군 제1지대 이흥광 지대, 동북민주련군 독립 제4사, 제166사의 정치위원으로 만주의 국공내전에 참가하였다. 그 후 1949년 7월, 제166사단을 인솔하여 신의주로 입북한 뒤 북한군 제6사단으로 개편하고, 사단장에 임명되었다.<sup>7)</sup>

## 2. 북한군의 도하작전과 국군의 대응조치

### 1) 김포지구의 병력배치 상황

#### (1) 제12연대 제2대대(-)의 재편성

한강 북안의 개성지구에서 38도선의 경계임무를 맡고 있던 제1사단 제12연대(전성호 대령)는 25일 새벽에 적의 공격으로 그 날을 미처 넘기지 못한 채 정면의 제2대대와 예성강 서쪽 연안지구의 제3대대가 남쪽으로 밀리게 되었다.<sup>8)</sup>

제12연대 제2대대(한순화 소령)는 그 일부가 문산쪽으로 철수하는 가운데 주력은 한강으로 남향하여 정관리(개성 동남쪽 10.5km) 일대의 포구에서 선박 10여 척을 얻어 한강하구를 건너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대장 한순화 소령과 대대 S-3 전자열 중위 등 150여 명의 동 대대원이 김포반도 동북단의 하성면 시암리(통진 동북쪽 10km) 부근에 6월 25일 19:00 전후경에 상륙했다.

저녁 무렵 제3대대의 부대대장 박광윤(朴光允 경기양평. 육사3기. 대령예편) 대위와 제11중대장 백문 중위 등 제3대대의 일부가 합세되어 집결병력은 모두 600명으로 늘어났다.

제2대대장은 제3대대와의 혼성병력 600여명을 4개 중대로 재편하여, 대대본

7) 김종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0, pp.174-176.

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77, p.661

부를 월곶면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하성면 가금리에서 월곶면 강녕포에 이르는 강안에 3대 중대를 배치하고, 1개 중대를 월곶면 북쪽고지에 예비로 확보하였다. 대대는 14:00경 진지편성을 끝내고 경계태세에 들어가게 되었다.<sup>9)</sup>

## (2)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의 편성과 배치

6월 25일 저녁, 개성에서 철수한 제12연대 제2대대는 하성면 시암리 부근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출동한 기갑연대와 장갑소대는 그 반대쪽의 하안에서 각각 전후좌우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밤을 새웠는데, 26일 날이 밝자 전황의 윤곽이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김포반도로 북한군의 도하작전 징후는 6월 26일 오전부터 포착되기 시작했다. 곧 6월 25일 저녁 웅진반도의 강령을 떠난 북한군 제14연대는 다음날 영정포로 집결하여 도하지점을 정찰하면서 도하용 대·소 선박을 수집하는 등 준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 시점 육군본부 작전담당자들은 김포반도에서 적의 징후와 도하 기도를 포착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군이 김포반도에 상륙하여 김포가도를 따라 영등포, 노량진 일대를 우회한다면 아군으로서는 후방이 크게 위협받게 되는 작전상 위기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26일 오전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를 편성(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7호(1950.6.27. 10:00), 구두명령은 26일 오전에 하달)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육본 수뇌부는 김포지구 한강하구의 넓은 강폭으로 적이 쉽게 도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온적인 조치만을 취했다. 즉 보병학교의 제3차(6.18-8.5) 고급반 학생이던 계인주 대령을 이날 아침 남산학교장으로 복귀 시킴과 동시에 김포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김포지구에 있는 모든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적의 도하를 막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갑연대 일부를 증원하고, 보병학교의 학생연대 후보생(갑종간부)으로써 1개 대대를 급편하여 김포반도에 투입하는 정도의 미봉책만을 강구하였다.

9) 제2대대장 한순화 소령은 부대를 재편성하고 부대대장 전면식 대위에게 대대를 지휘를 맡기고 제1사단 백선엽 사단장으로부터 "지체 말고 봉일천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통진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제12연대 제2대대는 육군본부의 지시에 의해 김포지구전투사령부 작전통제하에 들어가 있었다. 따라서 원대복귀 할 수 없게 된 제12연대 제2대대는 이날부터 김포지구에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



##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의 편성과 배치상황〉

- 전투사령부 : 김포경찰서에 전술지휘소 설치  
계인주 대령은 남산학교(주 정보학교) 기간요원들을 주축으로 하여 지휘부를 편성하였으나 통신장비 등의 불비로 인하여 그의 작전 통제 하에 있는 부대들의 지휘가 어려운데다, 편제상의 부대가 아닌 여러 개의 부대들이 분산 배치된 관계로 지휘체계마저 제대로 확립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 제12연대 제2대대(훈성)  
대대본부 : 통진(월곶면)  
제5중대 : 월곶면 용강리 북서쪽 무명고지(BS 8382)  
제7중대 : 101고지(BS 8580)  
제8중대 : 월곶면 조강리(BS 8880) 99고지  
제6중대 : 대대 예비, 통진(월곶면) 서쪽 무명고지에 배치
- 남산학교 : 월곶면 조강리  
공병학교 및 남산학교 기간요원 50여명으로 훈성 편성한 증강된 1개 소대 규모
- 기갑연대 제 3대대(도보수색대대) : 128고지 서쪽 기슭(강변)일대  
대대 본부중대 화기소대 및 제9중대를 대대장 강문헌(姜文憲)대위가 지휘
- 기갑연대 제1대대(장갑대대)  
장갑 제2중대 및 제2대대(기병수색대대) 제7중대의 2개 중대를 제1대대장 박무열(朴武烈) 소령이 지휘  
대대본부 : 통진(월곶면)  
장갑 제2중대 : 월곶면 조강리, 강령포, 128고지 남단 48번 도로상에 각1개 소대씩 배치  
기병 제7중대 : 월곶면 포내리(염하 동쪽 강변:BS 8275) 일대
- 보국대대  
대나루(현 김포CC 오른쪽 고갯길) 남쪽 151고지(BS837750) 일대(월곶면 포내리)  
26일 오전, 보국대대장 방원철(方圓哲) 소령이 육군본부에 출두하여 전투에 참전할 것을 자원한 결과, 김포반도 방어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대대장이 직접 1개 중대-병력 100명 미만, 장비 일제99식 및 38식 소총-를 지휘하여 김포로 출동하였다.
- 보병학교 후보생대대 : 갈매-72고지(BS 859757) 일대(월곶면 갈산리)  
26일 오후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보병학교 공격전술학 교관 장영문(張泳文) 소령이 후보생 대대장에 임명되었으며, 갑종 간부후보생 제2·제3기와 포병 사관후보생 제1기, 그리고 병기 사관 후보생 제4기와 일반 공병 후보생 제5기의 총500여 명으로 4개 중대를 편성, 김포로 출동하였다. 사관후보생들은 M-1소총 사격술 훈련까지 받았으나 실제 실탄사격은 실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게다가 그들에게는 지급된 것은 그들이 조작법도 배우지 않은 일제 99식과 38식 소총이었으므로 이 대대가 과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러운 실정이었다.

제인주 사령관은 사령부 편성이 끝나는 즉시 전날 개화산에서 밤을 새운 남산, 공병학교의 혼성병력 50여 명을 우선 조강리(월곶면 조강리)로 파견하여 도하장소의 경계에 임하게 하고, 병기관인 조한춘 중위를 육본과 부평의 제1병기대대(김창배 소령)로 보내 소요 탄약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전투사령부는 병력이 김포읍에 도착하는 대로, 반도 북단의 월곶면 문수산(376고지)을 중심으로 북쪽 한강변의 월곶면 조강리-강녕포와 그리고 북쪽의 염하변(월곶면 포내리)에 각각 배치하여 반도의 서북쪽 지역에 방어의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생소한 지역에 투입된 데다 통신수단이 확보되지 않아, 부대 간의 횡적인 연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령부의 종적인 지휘계통도 유명무실 그것이었다. 각 병사의 방어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 (3) 북한군 도하공격의 전초전

김포지구 전투사령부 지휘 하에 들어간 각 부대, 그 중에서 제12연대 제2대대는 6월 26일 16:00 무렵 월곶면 강녕포-조강리 대안의 하조강리와 석류포 부근에서 북한군의 도하지점 정찰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로부터 2시간 후 하조강리를 떠난 수척의 어선이 강녕포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 방어는 제12연대 제5중대와 장갑 1개 소대가 맡고 있었다. 2개 중대 규모로 추산되는 북한군을 태운 어선이 강녕포 부근 강변에 도착하여 하선을 시작하였을 때 기습적인 일제사격을 가해 북한군의 도하는 실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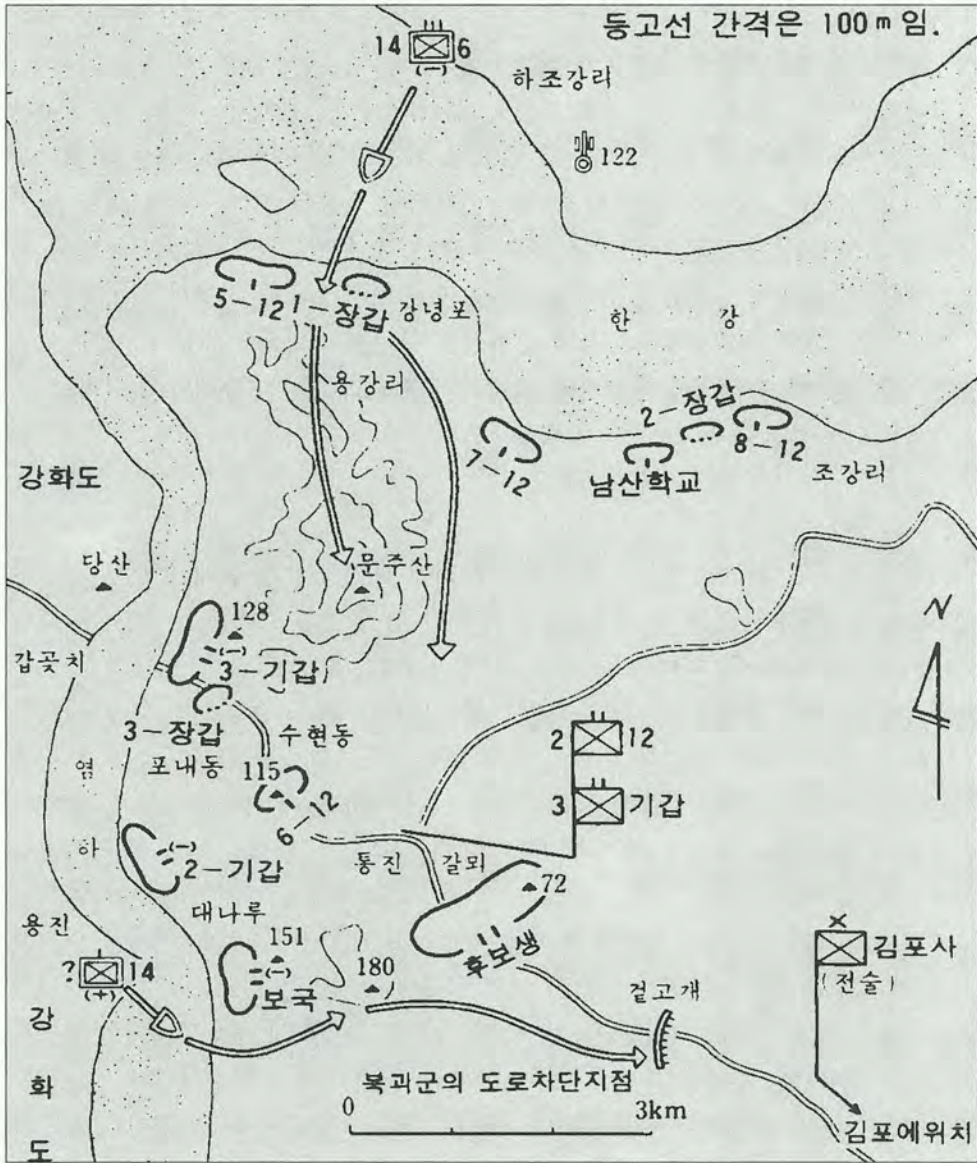
또한 월곶면 조강리 한강변 독에 배치된 장갑 1개 소대(곽응철 소위)는 석류포에서 화물선을 끌고 접근하는 북한군 발동선에 37mm포-장갑차에 장치된 직사포-를 발사하여 격침시켰다. 그러나 북한군 제14연대는 한밤중을 이용하여 소규모 부대를 월곶면 강녕포 동쪽 무명고지와 180고지-보국대대 방어진지 후방;BS 843747-로 침투시켜, 다음날 27일 실시할 도하작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 2) 김포지구 공방전

### (1) 북한군 제14연대의 기습

26일 삼경(三更)에 180고지로 침투하여 공격의 발판을 확보한 1개 중대 규모로 추산되는 북한군 제14연대의 선발대는 다음날 27일 이른 새벽 151고지에 배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의 배치 및 북한군 제14연대의 도하 상황〉



치된 국군 보국대대(-)를 배후에서 급습하였다.

한편 월곶면 강녕포 일대에서는 27일 자정을 전후하여 제12연대 제5중대와 제7중대의 배치지역 사이의 무명고지로 침투한 북한군 제14연대의 일부 병력이 교두보 확보를 위한 발판을 굳혔다.

북한군은 새벽 선발대의 사격유도로 대안 하조강리 부근에 방렬된 122mm곡사포가 일제히 포격을 개시한 가운데 북한군 제14연대의 주력이 각종어선에 분승하여 영정포를 떠나 한강을 도하하기 시작했다.

월곶면 강녕포 서쪽 무명고지에 배치된 제12연대 제5중대는 북한군의 도하부대가 강변에 도착하여 상륙을 개시할 시기에 사격을 할 계획으로 그들의 접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격을 중대 방어지역에 집중된 북한군의 122mm 곡사포탄에 의하여 진지가 크게 파괴된 데다가 그 동쪽 무명고지에 침투한 북한군 제14연대의 선발대가 월곶면 용강리로 진출하여 중대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결국 제12연대 제2대대의 한강변 방어선은 무너지고 제5중대와 제7중대는 월곶면으로 철수하게 되었으며 월곶면 조강리의 제12연대 제8중대와 남산학교 소속 병력 또한 접전도 하지 못한 채 월곶면으로 후퇴하게 이르렀다.

#### (2) 제12연대 제2대대의 역습 실패

제12연대 제2대대장 한순화 소령은 한강변에 배치한 3개 중대가 모두 철수하게 되자 강녕포로부터 먼저 월곶면으로 철수한 장갑 1개 소대를 수습한 후 대대 예비인 제2중대를 지휘하여 28일 08:00에 역습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포병의 공격준비 사격도 없이 행동을 개시한 역습부대가 월곶면 북쪽 1.5km 지점의 고막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북한군의 122mm곡사포 공격으로 진출이 어렵게 되었다. 이미 문수산을 점령하고 있던 북한군 제14연대 일부병력이 기습적인 측방사격을 가했기 때문에 역습부대의 공격은 차단되었으며 결국 월곶면 지역으로 철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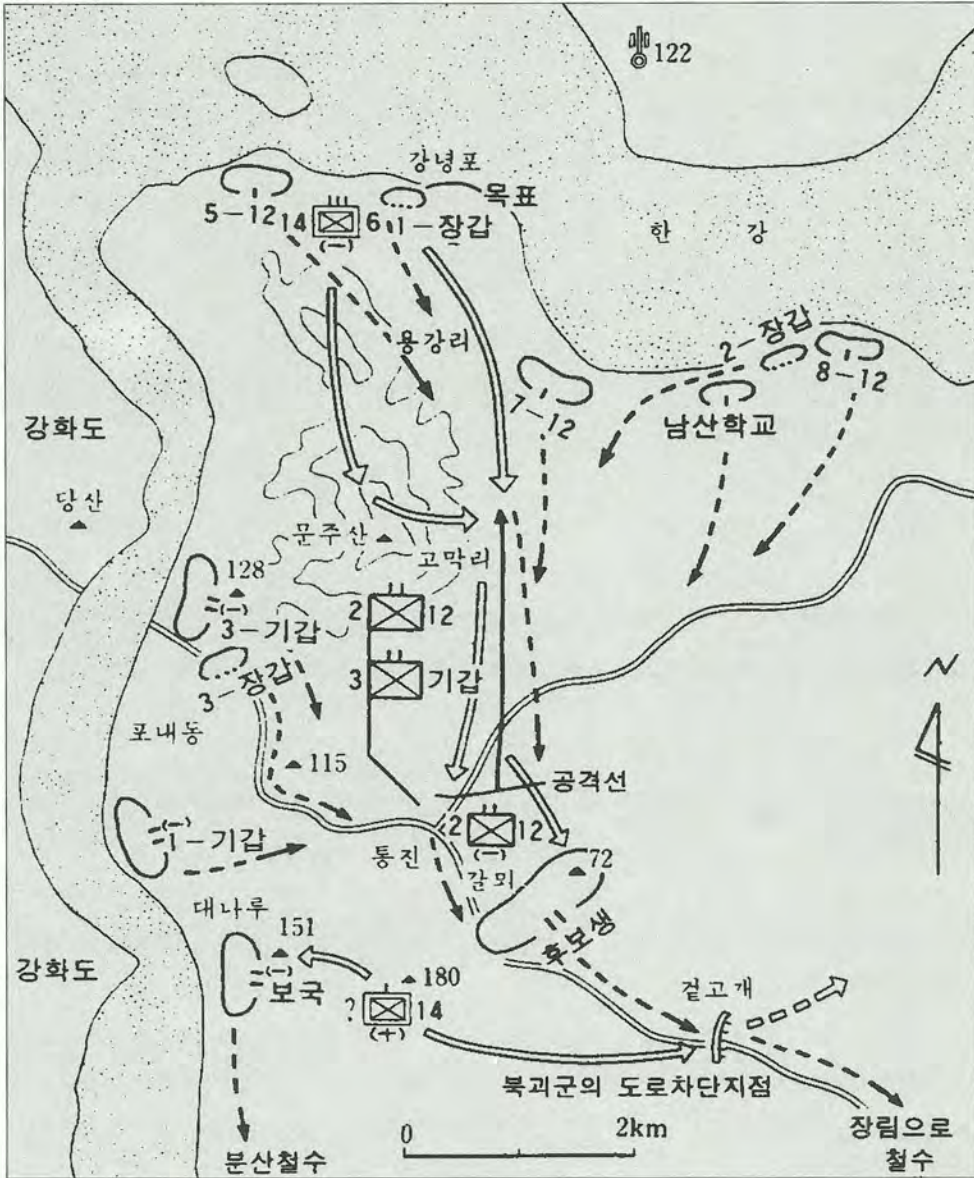
이 전투를 계기로 염하 강변에 배치된 기갑연대 제1대대 및 제3대대의 방어진지도 무너져 월곶면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월곶면에 집결한 김포지구전투사령부의 주력부대는 갈피-72고지(월곶면 갈산리)에 배치된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장림(BS 8972)(통진읍 도사리(마송초 삼거리))으로 철수하였다.

겉고개(월곶면 남동쪽 3.5km)(통진읍 서암4리)에는 잔날 밤 180고지로 침투한 북한군이 이 고개를 확보하고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 (3) 장림일대의 지연전(현 통진읍 도사리 마송초 삼거리)

27일 11:00를 전후하여 장림으로 철수한 제12연대 제2대대(-)는 60고지를 중심으로 하여 급편방어진지를 준비하고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의 철수를 엄호할 때

〈제12연대 제2대대의 역습실패와 각 부대의 철수상황〉



세를 갖추었다.

그 무렵 갈피-72고지(월곶면 갈산리)를 방어하던 보병학교 후보생대대는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의 주력이 철수한지 얼마 후에 그 뒤를 추격하는 증강된 1개 소

대 규모의 북한군을 격멸한 후 장림으로 철수하여 60고지 동쪽 구릉지에 방어진지를 급편 하였다.

장림은 월곶-김포-서울 통로(48번)와 장림-인천 도로(305번)의 분기점으로서 전술적으로 중요한 길목이었다.

후보생대대는 장림 삼거리 북쪽 구릉지에 진지를 구축하여 장림=김포읍의 도로를 제압하고 제12연대 제2대대는 일부가 한강변에서 분산되었으므로 제2중대로써 그 남쪽의 천마산(60고지) 일대에 진지를 급편하여 장림-양곡(장림 남쪽 4km)간의 도로를 차단하였다.

증강된 북한군은 1개 대대규모로서 각종 중화기와 함께 문수산 일대를 석권하고 곧 통진-김포가도를 따라 공격을 계속하여 국군이 방어선을 치고 있는 장림지구에 120mm 박격포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의 추격은 대단히 빨랐다. 제12연대 2대대와 보병학교 후보생대대가 미처 상호지원을 위한 협조를 할 사이도 없이 증강된 1개 대대를 장림에 투입하여 공격 개시 20분만인 13:00를 전후하여 먼저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의 방어진지가 돌파되어 김포읍 쪽으로 후퇴하였으며, 또한 좌측의 제12연대 제2대대도 양곡방면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로써 북한군은 이날 오후 김포평야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 (4) 운유산-73고지 방어선 편성(양촌면 석모리 일대)

장림에서 양곡을 거쳐 양촌면 구래리로 철수한 제12연대 제2대대(-)(한순화 소령)는 낙오병을 수습하면서 58고지(BS 911678)-소마산(양촌면 마산리)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305번 도로를 따라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군에 대비하였다. 이 때 기갑연대 혼성병력과 남산학교는 김포읍에 집결하였고 보국대대는 영등포의 본대로 복귀하였다.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장영문 소령)는 15:00에 58고지 동쪽 2km 지점에 있는 운유산(양촌면 석모리)에 방어진지를 편성하면서 한편으로는 추격하는 북한군과 교전하던 중 대대장 장영문 소령이 전사하고 부대대장 김광순(金光淳) 소령이 대대를 지휘하였다.

이때에 북한군 기마대가 운유산 방어선을 돌파하여 김포를 향해 차단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김포에 집결하여 운유산 쪽으로 진출 중이던 기갑연대 제2중대(장갑중대)가 그 도중 북한군 기마대와 조우하면서 이를 격퇴시킴으로써 김포의 조기 함락을 극적으로 모면할 수 있었다.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의 일부병력이 시흥으로 철수하고 이에 당황한 제12연대 제2대대의 낙오병과 일부 병력이 부평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58고지-운유산 방어선에 배치된 국군 병력은 도합 1개 대대 규모에도 미달되는 실정이었다.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육군본부에 병력증원을 요청하고 부평지구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들로 하여금 각기 전투부대를 편성하게 하는 한편 제1병기대대 병기고에 보유중인 M-1 소총을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에 지급하여 99식 소총과 교환시켰다.

육군본부는 김포반도의 전황이 점점 국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어가자 제3사단(유승열 대령) 제22연대(강태민 중령) 제3대대(대대장 손영을(孫永乙) 소령)-6월 25일 오후 용산에 도착, 제8연대 영내에서 대기-와 6.25 이틀 전에 집단휴가가 부여되었던 수도경비사령부 제8연대 제3대대(대대장 박태운(朴泰云) 소령)-휴가 중 복귀한 장병으로 재편성, 실병력 2개 중대 규모-그리고 26일 가평으로 출동하였다가 서울로 복귀한 기갑연대 도보수색대대 제8중대를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에 배속하였다.

전투력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강된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는 김포방어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운유산-73고지 방어선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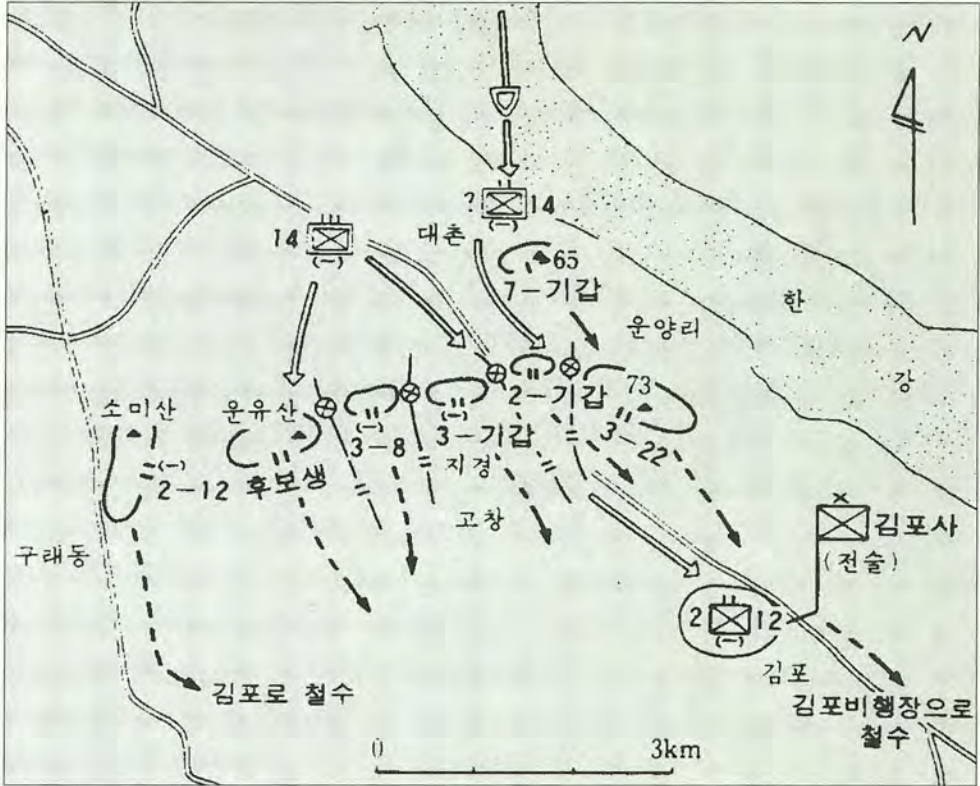
저녁 무렵 김포읍에 집결한 대대는 김포지구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운유산 동쪽의 73고지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대대는 그 좌측의 후보생대대와 저녁에 다시 증원된 제8연대 제3대대와 더불어 김포읍에 대한 최후 저지선을 방어하게 되었다.

이때 양곡의 제12연대 제2대대는 잔여병력이 150명에 불과해 김포읍으로 철수하여 재편에 들어갔다. 이날 낮에 김포읍에 집결한 기병 제7중대(김충성 중위)는 이때 한강변의 63고지에 배치되어 제22연대 제3대대 전방에서 적의 한강으로의 우회침투에 대비하였다.

이날 부평지구의 잔류 병력도 김포전선에 동원되었다. 제1공병단(윤태일 중령) 산하의 일부는 부평-김포읍 사이 계양산(395고지) 동쪽으로 추진되고 병기학교(심언봉 대령)에서는 기간장교(교관)로써 장교특전대를 편성하여 한강변의 고촌면 전호리 부근에 배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신장비의 미비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아 횡적 협조 및 연락은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심지어는 사령부와 각 전투부대 간의 통신마저도 연락장교의 운용으로 겨우 유지되는 형편이었다.

〈운유산-73고지 방어선의 전투 상황〉



(5) 북한군의 김포읍 점령

운유산-73고지 방어선에서의 첫 교전은 뜻밖에도 대촌(김포2동;운양동) 부근 한강변에서 벌어졌다. 곧 28일 새벽 북한군의 도하부대를 만재한 어선 수척이 만조가 되자 한강을 거슬러 향진하다가 대촌 북쪽 강변에 접안함으로써 그 남쪽 65 고지에 배치된 기갑연대 제7중대(기병중대)(김촌성 중위)와 충돌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강변에 병력을 상륙시키기 전에 선상에 거치한 82mm 박격포로서 65 고지의 기갑연대 제7중대를 제압한 후 상륙을 시도하였다.

이때 제7중대장 김촌성(金村成);육사 8기 특별) 중위는 모든 화력을 접근하는 북한군에게 집중시키면서 분전하였으나 전투력의 심한 격차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북한군의 박격포에 의해 마필이 포성에 놀라 요동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08:00 운유산-73고지의 제22연대 제3대대 방어진지에도 북한군의 공격준비



〈운유산-73고지 방어선의 배치 상황〉

- 김포지구전투사령부 전술지휘소 : 김포
- 보병학교 후보생대대(-) : 운유산
- 제8연대 제3대대 : 운유산 우측(동쪽) 구릉지
- 기갑연대 제3대대(-) : 운곡-지경(BS 948690) 일대(현 김포2동; 장기동)  
28일 증원된 제8중대 포함
- 기갑연대 제2중대(장갑중대) : 지경(48번 도로 차단)(김포2동; 장기동)
- 제22연대 제3대대 : 지경 우측(동쪽) 구릉지-73고지(BS 965685)  
제3사단 참모장 우병옥(禹炳玉 : 忠北 육사1기) 중령이 제22연대 제3대대와 동행하였으며 동대대의 작전 지휘권을 김포지구 전투사령관에게 넘겨 준 후 사령부에 남아 사령관을 보좌하게 되었다.
- 기갑연대 제7중대 : 65고지-대촌(BS 9570)(김포2동; 운양동)  
한강변의 경계임무 수행
- 제1공병단 일부병력 : 계양산(부평 북쪽 4km)을 확보(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동)
- 병기학교 장교특전대 : 전호(행주나루터 차안 서쪽 1.3km)(고촌면 전호리)  
27일 아침 병기학교장은 한강변 경계임무를 부여받고 기간장교 및 교관 60명으로 장교특전대를 편성하여 이를 전호에 배치하였다.
- 제12연대 제2대대(-) : 김포지구 전투사령부 예비로 전환, 김포에 집결 대기

사격이 시작되고, 48번 도로에 한강을 도하한 소련제 T-34 전차 두 대를 앞세운 북한군 제14연대의 주력이 나타났다. 국군은 김포지구에서 처음으로 북한군 전차에 대하여 2·36인치 로켓포와 장갑차의 37mm 직사포를 사격하였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김포지구 전투사령관은 운유산-73고지 방어선의 일각이 무너졌다는 상황보고를 받아 곧 사령부 예비인 제12연대 제2대대(-)를 전방에 투입하였으나 만회할 수 없었다.

북한군의 포가 김포읍을 공격하자 10:00에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공군의 경비사령부와 함께 지휘소를 김포읍 동남쪽 2km의 가도상으로 철수하여 계인주 대령과 최용덕 준장 등이 대응책을 논의하였으나 이날 새벽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결국 전세가 기울어졌다는 판단 하에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11:00 정각에 김포 철수명령을 하달했다.

북한군이 영등포쪽으로 도하를 한다면 퇴로를 차단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김포반

도 중부에서 교착상태에 있는 동안 부대를 우선 부평지구로 철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와 제12연대 제2대대(-)는 장릉산(김포1동)-계양산(인천)을 거쳐 부평으로 철수하였으며 나머지 부대는 전투사령부와 더불어 김포비행장으로 후퇴하였다. 이리하여 김포는 1950년 6월 28일 12:00를 전후하여 북한군이 점령하게 되었다.

한편 김포읍에서 석권한 북한군 제6사단은 부대를 전면 재정비하였다. 적은 김포반도 북단에 상륙을 시작한지 불과 30시간 만에 김포읍까지 진출하였던 것이다.

〈일자별 김포전투사령관과 작전경과〉

일자	사령관(병력)	작전경과
6/25일		· 북한군 : 개성점령, 한강변 진출 · 국 군 : 김포반도에 장갑소대 배치, 12연대 2대대 철수(25일 오후)
6/26일	계인주대령, 실제 최복수중령 (3개 대대규모)	· 북한군 : 통진-수참리 일대 교두보 확보(27일 오후) · 국 군 : 김포전투사 편성(26일 오전) 운유산 일대 저지진지 점령(27일 오후) · 도하시간 기록상이 -북한군측 기록은 26일 06:30 조강리 일대 교두보 확보로 되었으나 국군측 기록에는 26일 18:00 강녕포 일대에 상륙한 것으로 기술
6/27일	최복수중령 (5개 대대규모)	· 국 군 : 김포북방 방어선 붕괴, 김포비행장 경유, 부천으로 철수
6/28일		· 북한군 : 김포읍 점령(17:00)
6월29일	우병욱 중령 (3개 대대규모)	· 북한군 : 김포비행장점령 · 국 군 : 김포비행장 탈환작전 실패, 신임사령관 우병욱 중령자살
6월30일	임충식 중령 (4개 대대규모)	· 북한군 : 오류동 점령(20:00) · 국 군 : 오류동 일대 방어 및 역습
7월1일	최영희대령 (6개 대대규모)	· 오류동 일대 공방전
7월2일		· 오류동일대 공방전계속
7월3일		· 북한군 : 오류동 우회, 영등포 진출 · 국 군 : 한강방어선 붕괴, 수원으로 철수



### 3. 인천상륙작전과 김포반도 상황

(1950년 9월 15일 이후부터 21일까지)

#### 1) 김포지역의 한국해병들

미 해병 제5연대와 같이 인천시가지 전투를 마친 한국 해병대는 경인가도를 따라 진격하여 부평을 점령한 다음 한강변의 정곡리까지 진출했다.

한강 상륙부대가 서울 탈환을 목표로 경인가도를 진격함에 따라 북한군 패잔병이 측면으로 도주하였으므로 김포반도 쪽은 북한군으로부터 역습을 받을 우려가 있고 특히 김포비행장에 대한 엄호를 위하여 김포지구 일대의 차단과 방어를 위해 작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강도하 작전준비를 맡은 한국해병대 김윤근 소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는 9월 18일에 미해병 제5연대로부터 배속이 해제되어 독립적으로 김포와 부평간의 모든 지역을 경비하고 패잔병을 색출하는 임무를 맡았다. 제3대대는 18일 17:00에 박촌리(인천 계양구)까지 진출하였고 제1대대는 정곡리로 진출하였다.

김포반도 쪽에는 약2개 대대의 북한군 병력과 부평지구에서 퇴각하여 온 패잔병들이 합류되어 일부는 한강을 도하했고 나머지 병력 약500명은 부대를 재편성하여 다시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3대대는 김포지역의 패잔병 소탕을 위해 김포 수로 제방 북서쪽의 넓은 지역을 목표로 우선 일차적으로 부평-김포읍간 지역을 탐색한 다음 제2단계로 김포읍 이북지역에서 강화도까지 확보하기로 작전계획을 세웠다.

#### 2)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김포상황

9월 19일 오후 사령부 정보참모실 소속의 정보대가 단지 적정을 파악할 목적으로 김포에 진출했었다. 그날로 활동을 마친 정보대는 사령부로 복귀하면서 파견대와 같은 성격의 소규모 병력을 김포에 잔류시켰다. 파견대의 선임자 오세동 대위는 치안 목적의 임시 조직체인 지방청년단 단원들과 함께 얼마 안 되는 대원들을 김포 외곽의 요소에 배치하는 한편 김포 중심가의 간판도 없는 한 음식점에 지휘 본부를 설치하였다.

밤이 되자 한강하류의 나루터로 김포반도에 건너 온 북한군의 일부가 김포에 침



인천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낸 인천상륙작전 지휘선, 마운트 맥킨리(Mount Mckinley). 1950. 9. 14 자료사진 |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007, 눈빛)

투하였다. 중과부적으로 북한군에게 유리당한 파견대 본부에서는 오대위를 포함한 4명의 전사자 외에 또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뒤늦게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령부에서는 제3대대의 의한 즉각적인 김포 공격을 미해병 사단에 건의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이날 새벽부터 진행 중이던 한강 도하작전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고 한국 해병대 사령부와 제1대대는 곧 이동을 개시해야 할 시기였던 것이다.

9월 20일 제3대대는 김포반도 북서쪽 방어를 위하여 부대를 재배치하였다. 한강변 방어를 위하여 천등고개 북쪽의 96고지 일대에 제11중대를 두고 제1대대가 위치하고 있던 서해안 쪽의 검암리 일대에 제10중대를 이동시켰으며 김포-서울 간 도로를 중심으로 김포반도의 중앙지대를 방어할 수 있도록 김포 남동쪽 2km 거리의 풍무리 일대에 제9중대를 전개시키는 동시에 대대본부도 화기중대와 함께 풍무리로 이동하였다.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김포를 지척의 전방에 두고 이 대대 역시 전방으로의 진출은 제한 받고 있었다.

구 부평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대 사령부는 제3대대가 김포반도 패잔병 섬멸 작전을 하기에 앞서 정보탐색을 위해 정보참모부 예하 첩보부대 70명을 부평과 김포, 강화도에 출동시켰다.

오세동 대위가 지휘하는 첩보부대는 이날 새벽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김포읍을



중심으로 잠입하게 되었고 치안 목적의 임시 조직체인 지방청년단 단원들과 함께 김포외곽에 배치하는 한편 본부를 김포읍 안에 있는 우체국 건너편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첩보부대는 한강하류 나루터로 도하한 약 150명으로 추산되는 북한군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첩보부대장을 비롯하여 4명이 전사하였다.

이 사실을 전달받은 박촌리에 있던 제3대대 본부는 첩보부대를 구출하기 위해 출발 김포읍 남방에 위치한 157고지에 도착하여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때 주민이 제공한 정보로 신리(김포비행장 서북방 약 8km)에 북한군이 집결하여 있다는 것과 김포비행장을 탈환하기 위해 한강을 도하한 약 1개 대대의 병력이 재편성되어 역습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제3대대는 북한군이 집결하여 있는 신리일대에 81mm와 60mm 박격포 공격을 가하고 2개 중대를 포위한 후 제9중대로 돌격해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제3대대는 이 전투로 북한군 120명을 포로를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9월 21일 제3대대의 과업은 아침 일찍부터 각 중대별로 할당된 지역 내에서 패잔병에 대한 탐색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한편 9월 19일 이후 계속 한강을 건너와 김포 이북 쪽에 집결 중이던 북한군 제107연대는 9월 20일 밤 무방비 상태의 김포에 진입하여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그 이하의 2개 대대를 김포 남동쪽으로 전개시켰다. 새벽 동틀 무렵까지는 그 선두 부대가 김포-서울 간 도로와 한강 남안을 따라 선수동과 향산리에 이르고 있었다. 북한군 부대들의 이 같은 전개는 김포비행장을 공격할 목적에서였다.

9월 21일 06:00쯤 이날의 작전 준비를 막 시작하려던 제3대대 본부에 인근 주민이 북한군의 출현 사실을 알려왔다.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상당수의 북한군이 선수동 마을에 들어와 아침 식사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대대장의 출동명령을 받은 제9중대장 황영 중위는 제1 및 제3소대를 우선 출동시켰다.

풍무리와 그 동쪽의 선수동 사이에는 아직 추수하지 않은 논들이 약 500미터 폭으로 가로 놓여 있었다. 공격부대는 개활지를 통과 중 북한군의 사격을 받았다. 개활지를 덮은 짙은 안개 덕분에 북한군의 사격이 치명적인 것은 못되었으나 공격 부대는 고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총격전의 영문을 모르는 채 제9중대의 잔류부대는 신리 일대에서 서성대는 또 다른 북한군 부대를 발견하고 공격에 나섰다. 대대본부에서는 고전하고 있는 제9중대의 최초 출동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익삼 일조(일등병조)가 이끄는 대대 보급소대를 개활지 우측으로 우회 기동시켰다. 때마침 개활지를 덮었던 농무가 얇게 걷히기 시작하면서 북한군의 저

항 또한 힘없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이 무렵 김용선 중위가 지휘하는 고촌 방면의 제11중대는 실상 소부대 단위로 탐색 작전에 나서던 길이었으나 향산리 일대에서 분산 대기중이던 북한군들은 스스로 동요를 일으켜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해 버렸다. 북한군들은 앞을 다투어 김포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대대장 김윤근 소령은 화기중대를 추격부대로 동원하였다.

김포 중심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화기중대는 북한군의 저항을 받았다. 김포경찰서 북동쪽에 인접한 속칭 천주교 뒷산에 적 제107연대의 지휘부가 자리 잡고 있었던 때문이지만 이들 북한군의 저항도 오래 끌지는 못하였다.

야산 숲속에 위치해 있던 북한군의 지휘본부는 이광수 병조장이 이끄는 제2소대(로켓포 소대)의 급습을 받았다. 엄순길 수병의 제2분대에 붙들린 한 장교가 북한군 제107연대장이라는 것을 중대장 정중철 중위가 확인했다. 단독신문에 순순히 응하던 북한군 포로가 마실 물을 청하자 중대장은 연락병에게 물을 떠다 주도록 지시했다. 중대장은 북한군 장교 생포 사실을 알리기 위해 SCR-300 무전기로 대대장을 호출하는 동안 포로에 대한 주의를 잊고 있었다. 대대장에게 막 보고를 시작한 정중위의 카빈 소총을 포로가 순식간에 가로챘다. 때마침 수통에 물을 떠오던 연락병이 지체 없이 포로를 사살했으나 이미 정중위가 목숨을 빼앗긴 뒤였다.

천등고개 쪽으로 침투한 북한군의 일부는 제11중대가 포위하여 사살 또는 생포하였다.

김포와 그 주변에서 미처 도주하지 못한 북한군의 패잔병들은 제9중대와 화기중대에 대거 투항했다. 무려 300여명의 달하는 포로와 그리고 다량의 노획 무기가 미해병 사단에서 긴급 지원된 DUKW(수륙양용트럭)에 실려 인천으로 후송되었다.

9월 21일 오후 제3대대장 김윤근 소령은 화기중대를 대대본부 지역으로 복귀시키는 대신 제9중대를 김포로 재배치하였다. 이날 밤 최소한 중대 규모를 넘는 북한군이 제9중대에 역습을 감행하여 그 일부가 진내에까지 침투하였으나 다음날 새벽녘에는 모두 격퇴시켰다.

제1단계 김포반도 북한군 패잔병 소탕작전을 끝낸 제3대대는 제2단계 작전에 착수 김포읍 북쪽지역과 한강연안 지역 및 강화도까지 패잔병 소탕에 들어갔다.

김윤근 대대장은 대대본부를 월곶면 문수산 남방에 있는 월곶초등학교로 옮기고 문수산과 성동리 부근 그리고 한강하류 일대에 수색작전을 전개해 북한군 패잔병



을 생포하거나 사살함으로써 김포반도의 치안을 마무리 했다.

밤사이 <미주리호>를 비롯한 다수의 미 해군 함정들에 의해서 지원된 함포 사격은 해병들이 적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 4. 터키군 참전과 김포배치

- 미 제25사단 배속, 김포반도 진출

터키는 1950년 7월 중순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파병요청을 제의받자 4,500명 규모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터키군의 파견이 확정되자 터키 육군은 1950년 8월 3일 제28사단 예하의 제241연대와 제2기갑의 제2포병대대를 주축으로 전투부대를 편성한 후 터키 제8군단 제4관구에서 공병, 수송, 병기, 통신, 의무부대를 차출하여 지원부대를 구성함으로써 독자적인 전투수행능력을 보유한 제1여단을 창설 9월 10일 제2기갑 여단장인 야지시(Tahsin Yazici) 준장을 초대 여단장에 임명했다.

터키 제1여단은 9월 13일까지 각 병과별로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탄약 부족으로 실탄사격 훈련은 하지 못했다.

5,090명으로 편성된 여단은 9월 14일 추령준비를 마치고 20일 지중해의 항구도시인 이스켄데룬에 집결하였고, 제1대대는 25일, 제2대대는 26일, 제3대대는 29일 터키를 출발했다. 여단은 21일간의 항해 끝에 1950년 10월 17일 부산에 도착한 후 20일 대구에 위치한 유엔군 수용소로 이동하였다.

터키여단은 한강이남 후방지역에서 공비토벌 작전과 후보급로 경비업무를 맡은 미 제9군단에 배속되었다.

터키여단은 11월 13일 장단으로 이동 패잔병 소탕작전에 참가하고 20일 군우리로 이동하고 11월 28일 와원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치렀다. 11월 30일 미 제2사단 주력과 태형의 계곡을 돌파하고 12월 3일 개성으로 철수하였다. 1950년 12월 14일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어 김포반도로 진출하였다.

미8군은 12일에 A방어선에서 중공군 개입 후 처음으로 동서 양해안을 연결하는 B방어선(임진강-38선)을 구축하였다.

1950년 12월 10일에 B방어선의 좌측인 김포반도의 방어임무가 터키 여단에

게 부여되었다. 이렇게 하여 미제8군의 최좌측으로 문산에서의 임진강 남안을 방어하고 있는 미제25사단에 배속된 여단은 14일에 김포반도로 진출하였다. 여단장은 김포반도의 허리부분(김포읍에서 9km 서쪽에 있는 양촌면 양곡리 부근)을 분할하여 전방 지역이된 반도북쪽의 우전방 마조리 부근에 제1대대를 좌전방 문수산(△376) 부근에 제2대대를 배치하고 후방지역에 제3대대로서 운유산-가현산(△112)-운양리선에 제2저지선을 구축하였다.

그런데 38도선까지 후퇴한 북한군은 그의 주공을 중동부 전선으로 지향함으로써 서부전선에서는 12월 31일까지 소강상태의 전황이 계속되었다. 김포반도 정면의 북한군도 도강을 기도치 않아 터키 여단 정면에서는 북한군과의 전투는 없었다.

## 5. 1.4후퇴 이후 해병대의 김포반도 방위

(1951년 3월 16일부터 4월말까지)

중부전선의 한국군과 유엔군이 진격을 계속함으로써 서부전선의 적은 측방이 포위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3월 중순에 서울을 포기하고 북으로 후퇴하기에 이르렀으며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일제히 한강을 도하하여 3월 15일에는 서울을 완전히 장악하였고 이어서 계속하여 북진을 준비하였다.

이와 같이 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대대는 인천방어와 치안임무를 끝마치고 미제2특별공병여단으로부터 제1사단에 배소되어 계산동(인천 동북쪽 10km)으로 전진하게 되었다.

이때 대대에 부여된 임무는 제1사단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연결을 유지하면서 김포반도에서의 적의 상륙을 저지하고 고수함으로써 사단의 우측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또한 김포반도는 강화도를 비롯한 서해의 여러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역이므로 수륙양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병대가 이 지역을 맡게 된 것이다.

**3월 16일** : 대대장 오명복 소령은 이날 계산동으로 이동하여 3월 17일 10:00를 기하여 제1사단에 배속되라는 미제1군단장의 작명을 받고 우선 사단의 작전 현황과 대대의 임무를 분석한 다음 부대 이동계획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 1)대대는 계산동으로 전진하여 제1사단의 좌일선으로써 김포반도를 방위하려 한다.
- 2)제21중대(증강)는 양곡리에 위치하여 부여된 지역을 확보하고 김포반도의 북반부에 대한 적의 상륙을 저지하라
- 3)제23중대(증강)는 김포에 위치하여 부여된 지역을 확보하고 김포반도의 남반부에 대한 적의 상륙을 저지하라.
- 4)화기중대는 제21, 제23중대에 박격포 및 중기 1개 반을 각각 배속하고 중대(-)는 계산동에 위치하여 부여된 후방지역을 확보하라.
- 5)제22중대는 대대에비대로서 최초 계산동에 위치하여 부여된 후방지역을 확보하고 의명 출동할 준비를 하라.
- 6)대대 CP는 계산동에 위치한다.

**3월 17일** : 대대는 이날 09:00에 부대 이동을 개시하여 16:00에 제21중대(장, 박이 중위)는 양곡리(김포 북서쪽 7km)에, 제23중대(장, 김재혁 중위)는 김포에 그리고 제22중대(장, 이 중위)와 화기중대(장, 강영구 중위)는 계산동에 각각 배치되어 이날부터 지역 내 잔적을 소탕하고 적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정찰에 착수하였다.

**4월 4일** : 그 동안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북진을 계속하여 이미 임진강까지 진출하고 있었던바 대대는 사단의 작명에 따라 김포반도의 북반까지 전진하여 한강하구로부터 임진강을 따라 제1사단과 연결하게 되었다.

대대장 오명복 소령은 2개 중대를 전방 1개 중대를 예비로 하여 반도의 북반을 연하여 주저항선을 00기로 계획하고 이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급후 이 작전개념 밑에서 김포반도 방위임무를 계속하였다.

- 1)대대는 김포반도의 북반을 주저항선으로 하여 이를 고수하면서 제1사단의 좌측을 포호하려 한다.
- 2)제21중대는 대대의 우일선으로 부여된 전투지대를 방어하라
- 3)제22중대는 대대의 좌일선으로 부여된 전투지대를 방어하라
- 4)화기중대는 일선중대에 박격포 및 중기 1개 반을 각각 배속하고 중대(-)는 대대의 제2예비대로서 최초 양곡리에 위치하여 대대 좌측을 방어하라
- 5)제23중대는 대대 제1예비대로서 최초 양곡리에 위치하여 대대우측을 방어하고 의명 전방에 투입될 준비를 하라
- 6)대대 CP는 양곡리에 위치한다.

4월 5일 : 대대는 이날 08:00에 부대 이동을 개시하여 11:30분에 제21중대(장, 박이0 중위)는 태동에, 제22중대(장, 이00중위)는 통진에 각각 CP를 설치하고 제23중대(장, 김재혁 중위), 화기중대(장, 강영구 중위) 및 대대 CP는 양곡리에 전진하였으며 15:00에 이르러 대대는 방위진지의 점령을 끝마쳤다. 그러나 대대의 방위정면은 너무 넓었으므로 대대는 주저항선에 연하는 주요 지점에만 병력을 배치하고 그 간격은 정찰로서 보강하는 개념아래 방어 임무를 계속하면서 4월말에 접어들었다.

#### 〈참고문헌〉

- 최용호·김병륜, 『그때그날-끝나지 않은 6.25전쟁이야기』, 삼우사, 2003년 8월 20일 초판2쇄  
국방부전사편찬연구위원회, 『38도선초기전투』  
신덕수, 『한국전쟁 초기작전간 김포전투 고찰』  
최용호, 『한국 전쟁시 북한군 제6사단의 서남부 측방기동 분석』, 〈전사〉 제4호, 200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1-북한의 남침과 서전기-』, 2003.12.20  
국방부전사편찬연구소, 『인천상륙작전 -한국전쟁 전투사-』, 1983.12.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집, 『한국전쟁사(제5권)』, 1972.12.30.  
국방부, 『한국전쟁사(제3권)』, 1970.12.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집, 『한국전쟁사(제10권)』, 1972.12.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의 전면침략과 초기 방어전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6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편집, 『한국전쟁사료(44)』, 1986년 8월 30일.  
국방군사연구소, 『전적기념물편람집』, 1994.12.13  
해병사령부작전교육국, 『해병전투사(제1부)』, 1953. 3.  
손문식, 『UN군지원사』, 국방군사연구소, 1998.12.28.  
육군본부, 『유엔군전사-낙동강에서압록강까지-제1집』, 팜프렛70-17-1, 1963.9.30